

## 2020년 최고 기대작

## 김서형 주연

SBS 미니시리즈

# 아무도 모른다

3월 2일(월) 첫 방송

오는 3월 2일(월) 첫 방송되는 SBS 새 월화드라마 <아무도 모른다>(극본: 김은향, 연출: 이정흠)는 “좋은 어른을 만났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까” 경계에 선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던 어른들의 이야기를 그린 미스터리 감성 추적극이다. 김은향 작가의 촘촘하고 탄탄한 대본과 이정흠 감독의 힘 있는 연출이 만나 2020년 봄, 명품 드라마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서늘한 카리스마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하는 배우 김서형의 단독 주연작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김서형이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팀장 차영진은 고졸로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모든 계급을 특진으로 진급한 여경들의 전설이다. 그런 영진에게는 고등학교 시절 단짝친구를 연쇄살인마에게 잃고 범인을 잡기 위해 형사를 택한 아픈 과거가 있다. 가족도, 친구도 없이 오직 범인 잡는 일에만 매달리던 영진에게 먼저 다가와 친구가 되어준 아랫집 소년 은호가 호텔에서 투신하여 중태에 빠지자, 영진은 자살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음을 알아채고 사건의 실체에 다가간다.

류덕환이 맡은 이선우는 은호의 담임 선생님이자 신성중학교가 속한 신성재단 이사장의 처남이기도 하다. 처음 부임했던 학교에서 학생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학교를 떠났던 선우는 아이들을 향한 애정과 관심을 끊어버린 채 신성재단 초대 이사장이었던 아버지의 유지에 따라 신성중학교 교단에 섰다. 그런 선우에게 은호는 ‘좀 신경이 쓰이는 애’였을 뿐이다. 은호가 추락하자 선우는 죄책감과 다시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는 열망으로 사건에 뛰어든다.

안지호가 맡은 고은호는 어릴 때 차 사고로 아빠가 죽고 히스테리가 심한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다정하고 속이 깊은 소년이다. 위층에 사는 영진과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엄마의 남자친구를 영진이 제압해 준 게 인연이 되어 친구가 되었다. 영진처럼 힘 없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어른이 되고 싶었던 은호에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생기면서 사건은 시작된다.

박훈은 은호가 추락한 밀레니엄호텔의 대표이자 한생명재단 이사장 백상호 역을 맡았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자수성가한 백상호는 영진과 첨예한 갈등을 보이며, 선과 악, 그리고 정의의 경계를 흔드는 인물이다.

그밖에도 문성근, 민진웅, 강예원, 전석찬, 백수장, 이채은, 박철민, 전무송, 강신일, 백현주, 권해효, 조한철, 장영남, 서이숙, 윤찬영, 윤재용 등이 출연하여 든든하게 드라마를 받쳐준다.

‘좋은 어른’에 대한 사회적 화두를 던지며 2020년 최고 기대작으로 떠오른 <아무도 모른다>는 3월 2일(월) 밤 9시 40분에 첫 방송된다.



## K-트로트의 세계 정복

트로신이 떴다  
K-트로트 in 베트남

3월 4일(수) 첫 방송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광하는 트로트가 해외에서도 먹힐까?”라는 작은 궁금증에서 시작된 <트로신이 떴다> (연출: 곽승영, 최소형)가 3월 4일(수)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트로신이 떴다>는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神들이 ‘트로트 세계 무대’에 도전하는 신개념 트로트 예능이다. 트로트의 세계 진출을 위해 남진, 김연자, 주현미, 설운도, 진성, 장윤정 등 국내 최정상 트로트 가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역대급 라인업이다. 또한 싱어송라이터 한류스타 정용화와 재치만점 붐이 합류

해 ‘만능 막내’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트로신이 떴다>는 지금껏 단 한 번도 트로트 버스킹 공연을 해본 적 없는 트로트의 전설들이 낯선 해외에서 트로트 무대를 펼쳐야 하는 눈물겨운 도전기다. 여기에 개성 강한 트로트 신들이 해외에서 동고동락하며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무대 밖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 1월 베트남 촬영을 마치고 돌아온 곽승영 예능4CP는 “우리 출연자들 경력의 합이 222년이다. 그만큼 오랜 세월 무대를 경험했지만 길거리 버스킹은 처음이라 많이 떨리

고 설렌다고 하셨다. 해외에서는 트로트가 낯선 장르이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몰라서 더 긴장하셨던 거 같다. 그런데도 프로는 프로여서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 최고의 무대를 선보였다”고 전했다.

곽 CP는 “관객들이 생각한 것 이상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흥’이라는 건 국적 불문, 나이 불문하고 다 통하더라. 트로트로 가수와 관객이 하나가 되는 가슴 뜨거운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트로트 신들의 K-트로트 세계화 도전기 <트로신이 떴다>는 오는 3월 4일(수) 밤 10시에 그 베일을 벗는다.

정글의 법칙  
HUNGER GAME

2월 29일(토) 첫 방송

윤도현 팀 vs 선 팀

역대 정글 최강자들의 한판 승부

<정글의 법칙> 400회 특집 ‘헝거 게임 2’(연출: 김진호)가 2월 29일(토) 첫 방송된다.

‘헝거 게임 2’에는 김병만을 필두로 윤도현, 선, 이승윤, 노우진, 오종혁, 박태환, 한보름, EXID 하기가 출연한다. 역대 정글의 최강자들인 이들은 ‘헝거 게임 2’에서 윤도현 팀과 선 팀으로 나뉘어 치열한 생존 대결을 펼친다.

<정글의 법칙>의 내레이션을 담당하며 오랜 시간을 함께한 윤도현이 이끄는 팀에는 정글 생존의 모든 기술을 섭렵한 정글 베테랑 오종혁과 생존력 최강의 자연인 이승윤, 여자 김병만으로 불리는 한보름이 함께한다.

강인한 체력에 지치지 않는 정신력까지 갖

춘 선 팀은 완성형 정글러 마린보이 박태환과 정법 최다 출연자 노우진, 정글 에이스 EXID 하기가 뭉쳤다. 두 팀의 불꽃 튀는 끝장 승부가 벌써부터 관심을 모은다.

김병만은 ‘설계자’로 등장하여 이들의 게임 미션에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김병만은 이번 촬영 후 “정말 제대로 된 400회 선물을 받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혀 명불허전 정글 최강자들의 한판 승부에 한껏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최후의 개척지 팔라완에서 펼쳐지는 <정글의 법칙> 400회 특집 ‘헝거 게임 2’은 2월 29일(토) 밤 9시에 방송된다.

# SBS-GMA, 필리핀 판 **런닝맨** 공동제작 계약 체결

##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 번째



질베르토 두아빗 GMA 사장   김용재 글로벌콘텐츠Biz팀장   펠리페 고손 GMA 회장   펠리페 알롱 GMA 부사장   김수환 글로벌콘텐츠Biz팀 차장

〈런닝맨〉이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필리핀에서도 달린다.

SBS는 필리핀의 대표적인 지상파 채널 GMA 엔터테인먼트 그룹과 지난 11일(화), GMA 네트워크 센터에서 〈런닝맨〉 공동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GMA 엔터테인먼트 그룹은 올해 70주년을 맞이한 필리핀 유수의 지상파 채널로, 이날 행사에는 펠리페 고손(Felipe L. Gozon) GMA 그룹 회장, 질베르토 두아빗(Gilberto R. Duavit, Jr.) 사장, 펠리페 알롱 부사장 등 주요 경영진들이 대거 참석해 〈런닝맨〉 공동제작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펠리페 고손 회장은 “우리는 〈런닝맨〉이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필리핀에서도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용재 SBS 글로벌콘텐츠Biz팀장은 “이번 필리핀판 〈런닝맨〉은 한류 정점에 있는 필리핀 지역에 다시 한번 SBS 공동제작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올해 베트남(시즌 2), 인도네시아에 이어 필리핀에서 방송됨으로써 〈런닝맨〉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SBS는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필리핀에서도 〈런닝맨〉 공동제작 계약 체결을 성사시키며 〈런닝맨〉이 ‘新 한류’ 확산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필리핀에 〈런닝맨〉 공동제작 소식이 전해지자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필리핀 트위터에서는 #RunningmanOnGMA가 실시간 검색어 2위에 올랐고, 인기 연예인들이 출연에 관심을 보이는 등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 말초적이고 편향된 뉴스 지양 불편부당한 뉴스로 우리만의 시청자 총 확보할 것

- 남상석 보도본부장

### 코로나19 발생으로 보도본부가 바빠 보인다. 현재 상황은?

담당 취재부서는 물론 보도본부가 총동원 체제로 대응하고 있다. 직원들의 피로도가 걱정될 정도다. 정확하고 입체적인 보도를 이어 온 SBS 뉴스를 이어가겠다는 사명감으로 임하고 있다. 사회적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근거 없는 소문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취재를 통해 정확한 사실과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 취임 2개월이 지났다. 보도의 현황은 어떤가?

하루하루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부족한 여건에도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감사드린다. 개개인들이 갖춘 뛰어난 역량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열정적으로 움직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균형 잡힌 보도, 팩트에 입각한 깊이 있는 취재는 타 방송사가 따라 오기 힘든 위치에 올라 있다. 그러나 이런 정체성 때문인지 우리 뉴스에 대한 팬덤이 많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 뉴미디어 부문에서는 취재파일 등 텍스트 기반 콘텐츠와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스프스뉴스와 비디오머그 등의 동영상 콘텐츠가 두터운 구독층을 형성하며 이 부문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매체들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의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온·오프라인 모든 플랫폼에서 SBS 뉴스 콘텐츠의 팬층을 확장하고 유지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 뉴스의 시청률을 어떻게 올릴 계획인지?

TV 뉴스의 실시간 시청자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보도의 영향력도 중요하다. 규모가 작은 언론들도 간간히 터지는 특종이나 획기적인 기획기사로 존재감을 인정받고, SBS 역시 창사 초기에 굵직한 특종을 쏟아내며 뉴스가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메인 뉴스는 지난해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지켰고, 영향력 면에서도 타 언론사를 압도했다. 그러나 올해는 경쟁구도가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정치적 편향성을 확연히 드러내면서 손쉽게 시청자를 끌어모으거나 눈길 끄는 뉴스 위주로 편집해 우리 시청률을 잠식하는 경우도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극한의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도본부는 바른 언론의 자세를 흔들림 없이 지키면서 불편부당한 뉴스를 찾는 우리만의 시청자 총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의미 있는 특종과 심층보도로 명실상부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언론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영향력과 시청률을 동시에 쫓는 게 쉽지 않겠지만 해내야 할 목표이다.

### SBS디지털뉴스랩 대표였는데 뉴미디어 쪽 상황은?

해외 유력 언론사들은 물론 국내 언론사들도 디지털 전략 강화를 목표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뉴미디어 부문 선두주자인 SBS는 과감하고 새로운 시도들로 타사를 압도하며 우위를 지켜 왔다. 디지털뉴스랩을 설립한 것도 이런 우위를 이어가기 위한 전략의 하나였다. 디지털뉴스랩은 SBS 뉴스 콘텐츠를 모바일 플랫폼에서 확산, 유통하는 역할과 뉴스를 외면하는 젊은 층에게 어필하는 독자적인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글로벌 확산을 위해 기술적 준



비도 하고 있다.

### 보도의 제1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공정’이다. 사전적으로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뜻인데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 사물이나 사안을 들여다 볼 때 주관이나 주변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해야 올바른 보도를 할 수 있다. 쉽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공정 보도’라고 생각한다. 기자 스스로 바른 시각으로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훈련하고, 시스템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겠다.

### 끝으로 한마디

품위 있는 뉴스와 높은 시청률, 조회 수를 동시에 구현하는 것은 모든 언론사들의 희망이다. 사회적 의미가 없는 말초적인 뉴스로 시청률을 올리지 않았다. 정치적 편향성도 철저히 배제하겠다. 특정 정파에 기운 사람들 입맛에 맞는 뉴스에 치중하다 보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정도를 지키면서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사랑받는 뉴스를 만들겠다.

### 파워FM 20라운드 연속 청취율 1위



SBS 파워FM(107.7MHz)이 청취율 1위를 지켰다. 2015년 2라운드에서 처음 1위에 오른 후 6년째로, 청취율 조사가 분기별로 진행되는 걸 고려하면 20라운드 연속이다.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2020년 1라운드 라디오 청취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SBS 파워FM은 청취 점유율 24.7%로, 2위 tbs(14.7%), 3위 MBC표준FM(14.4%)과 큰 차이로 1위를 차지했다. 13~59세 타깃 점유율은 27.9%로, tbs(14.8%), MBC표준FM(11.7%)과 더욱 차이가 벌어진다. 한편, 청취율 Top 7에 <두시 탈출 컬투쇼>, <김영철의 파워FM>, <붐붐파워>, <박소현의 러브게임> 등 SBS 파워FM의 4개 프로그램이 이름을 올렸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와 <최화정의 파워타임>은 Top 20에 들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13~69세 라디오 청취자 3,000명을 대상으로 1월 7일~20일 2주간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1.8%, 신뢰구간은 95%p다.

### SBS 플러스 새로운 채널 BI 선보여

“SBS Plus가 On-Air 되는 순간 여러분은 행복 속으로 빠져듭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SBS Plus와 오늘도 행복을 ON-Air 하세요!” SBS Plus가 채널 BI를 새롭게 단장했다. “Plus를 Play하다”라는 의미를 함축시켜 새로운 BI에 담은 SBS Plus는 보고 싶은 모든 것, 즐기고 싶은 모든 것이 다 있는 채널 SBS Plus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한다. 새 BI는 지난 14일부터 반영됐다. SBS Plus의 새 BI는 황금비율을 이용한 디자인으로 시각적 안정감을 주고 가독성이 높다. 또 ‘플러스’라는 발음의 느낌을 표현해 시청자의 니즈를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반영하려는 의지를 담았다. 이렇게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BI는 다양한 콘셉트의 프로그램을 포용하는 디자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새롭게 출발한 SBS Plus는 2020년에도 부지런히 달리고 있다. 가구 시청률 1%를 넘는 화제작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를 비롯해 김보성, 이훈이 출연한 <내기맨>을 선보였고 2월 25일에는 K 랭커지 확산에 앞장설 <맨땅에 한국말>을 론칭했다.



### SBS, 2년 연속 이달의 기자상 최다 수상 언론사 올라 제51회 한국기자상 - ‘인보사 종양 유발 위험과 허가 과정 의혹’



지난해 ‘이달의 기자상’을 가장 많이 받은 언론사는 SBS였다. 기자협회보가 2019 이달의 기자상(341회~352회)을 수상한 언론사를 분석한 결과 SBS가 총 7차례 수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SBS는 2018년(12편)에 이어 2년 연속 최다 수상했다. SBS의 수상작은 ‘체육계 성폭력’, ‘사실로 드러난 컬링 대부 김경두 일가 전황’, ‘2019 국회 예산회의록 전수 분석’, ‘환경부 블랙리스트 청와대 개입 의

혹’, ‘인보사, 종양 유발 위험...허가 과정 의혹’, ‘정준영 휴대전화로 드러난 연예계-공권력 유착비리’ 등이다. 한편, 2월 20일(목)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1회 한국기자상 시상식에서 ‘인보사 종양 유발 위험과 허가 과정 의혹’ 연속 보도가 취재보도 부문을 수상했다. 한국기자상은 한국기자협회가 그해에 보도된 기사 중 가장 뛰어난 기사를 가려내 수여하는 상으로 각계 인사가 포함된 20여 명의 심사위원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선정한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과 남주현, 노유진, 배준우 기자는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신약 인보사에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세포가 사용된 사실을 밝혀내는 등 안전성과 허가 과정의 의혹을 선도적으로 파헤쳐 호평을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안이라 대부분의 언론이 공식 발표를 전하는 데 그쳤던 반면에 의학전문기자를 중심으로 한 SBS 취재팀은 국제논문과 해외 전문기관 등을 광범위하게 취재하는 독자적 탐사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 방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 <그알> ‘신정동 엽기토끼’, <동상이몽 2> 이달의 PD상



김재원 SBS PD협회장 장경주 PD 오유경 작가 <그것이 알고 싶다> ‘두 남자의 시그니처-엽기토끼와 신발장 그리고 새로운 퍼즐’ 편(연출: 장경주, 작가: 오유경)이 이달의 PD상을 수상했다. <그알>은 지난 2015년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을 방송한 뒤에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새로운 제보 내용을 토대로 용의자 2인을 새롭게 발굴하여 경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등 큰 반향을 이끌어냈다.



김동욱 PD 김미경 작가 <동상이몽 2- 너는 내 운명>(연출: 김동욱, 김명하, 작가: 김미경)도 이달의 PD상을 수상했다. <동상이몽 2>는 진태현-박시은 부부의 흔치 않은 ‘성인 입양’ 뒷이야기를 전하여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재고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2월 25일(화) SBS PD협회 자체 행사로 치렀다.

### 2019 한국방송기자대상 - ‘청약이자 미지급 사태’ 연속 보도



이경원 원종진 김민정 정혜경 제일(A&T) 지난해 보도국 이슈취재팀이 보도한 ‘청약이자 미지급 사태’ 연속 보도가 방송기자연합회가 수여하는 2019 방송기자대상 경제보도 부문을 수상했다. 방송기자대상은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방송학회가 한 해 동안 방송된 보도 중 가장 뛰어난 보도에 주는 상이다. 김민정, 이경원, 정경운, 최재영, 정혜경, 원종진, 제일 기자 등은 8년 전 정부가 청약저축 상품의 이자율을 낮추는 과정에서, 가입자들에게 수천억 원 규모의 청약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다.